

고교생 84명 시베리아서 평화통일 합창

전남도교육청 독서토론편역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 마쳐

1만km 16일간 열차로 횡단...독서·사색·토론 수업

전남도교육청의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편역차학교(교장 하상규·장흥고 교장 등 총 104명으로 구성된 독서토론편역차 학교는 지난달 30일 전남도교육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바이칼 호'의 알훈섬과 이루쿠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만km의 시베리아를 열차로 횡단하며 독서와 사색,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히 7일동안 쉬지 않고 달린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소통과 공감의 인성교육,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 국가 체현 등을 실천했다. 또 광복 70주년 맞아 연해주 일대 항일독립운동의 거점



장만채 교육감이 지난 1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15박16일간의 유라시아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편역차 학교' 참가자들을 안아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인 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선생 유희비, 신한춘, 최재형 선생 거주지, 최초 망명정부인 대한국민회의 등을 찾아 선조들의 조국애와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손으로서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민족의 시원으로 알려진 바이칼호수의 알훈섬에서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소망을 담은 오방색 리본달기 행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했다.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문화센터와 모스크바 원광학교에서는 재러동포인 고려인 학생들과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 민족의식을 공유했다.

열차학교에 참가한 우재민 군은 "열차 안에서 친구들과 토론·글쓰기를 하며 나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을 조화롭게 엮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친구·선생님들과 16일간 부대끼면서 진로·진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영국은 세익스피어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인도와 바꾸지 않았다"며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느낀 발해의 땅을 밝아보았을 것이다. 그 발해와도 바꾸지 않을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편역차 학교는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의 심화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정신대 몰랐던 것 부끄러워...역사 바로 세워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단 보고대회

일제 강제징용 현장을 답사한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16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2015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단 보고대회'를 열어 체험담을 발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역 고등학생 24명과 함께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했던 현장 등을 답사하는 ‘2015 한·일청소년평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로 6번째인 행사에 참여하는 광주지역 14개 고등학교 1~2학년생 24명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옛 공장 터 ▲미쓰비시 지하군사공장 터널 ▲미쓰비시 오에 공장 내 순직비 ▲

지코시 회사 앞에서 강제노역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벌인 시위를 직접 봤다”며 “열 몇 명, 그것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자국의 일도 아닌데 그 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김양은 양국 청소년이 분노를 뛰어넘어 넘어 인정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청소년평화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8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초청으로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나고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그동안 124명의 한·일 청소년이 양국을 오가며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누리과정 의무 지출 불가

일방통행 교육개혁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는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 지정한 것과 관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개정이 시도 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교부기준 개선 정책엔 구용역 진행 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 내용을 공개하고 집중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3 몰림 08:04
해질 19:20 달림 20:37

한낮 무더위 기승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3/33	보성	맑음	20/31
목포	맑음	23/30	순천	맑음	22/33
여수	맑음	23/29	영광	맑음	22/32
나주	맑음	22/34	진도	맑음	21/31
완도	맑음	22/31	진주	맑음	22/33
구례	맑음	21/34	군산	맑음	22/31
강진	맑음	21/31	남원	맑음	21/32
해남	맑음	21/32	홍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20/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중랑 파고(m)	중랑 파고(m)
남부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40
빨래	80

◇물때

목포	밀물 03:54	썰물 09:03
	15:59	21:09
여수	10:30	04:19
	22:49	16:30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	☀	☁	☁	☀	☀	☀
22/32	23/30	23/28	22/27	22/29	22/30	23/30

광주학생독립운동 계재 소련 언론 발굴

김재기 전남대 교수 ‘프라우다’지 1929년 12월29일자 공개

1929년 11월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학생 126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보도한 당시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지가 발굴됐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조선학생들 독립운동-126명 공산주의자로 체포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1929년 12월 29일자 ‘프라우다’지를 발굴해 최근 공개했다.

이 신문은 당시 “조선총독부는 최근에 조선에서 일어났던 학생 시위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던 것이라고 발표

박병중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병중 고흥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상을 받았다는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어 수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이 허위라는 것을 피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양산지점 573-4150

불루밍지점 513-4150

첨단지점 576-4150